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젓빛 먼지가 이른 봄날의 산하를 통째로 삼켜 버린 삼월의 아침. 국도 18호선을 따라 진도로 향한다. 세월호 참사의 상흔을 되새기는 기억의 행로다. 진도대교를 건너니 해풍을 맞으며 한데서 겨울을 이겨 낸 봄동 수확이 한창이다. 진도읍을 지나 서남쪽 해안을 향해 30여 분쯤 달리면 방파제 위로 붉은 등대가 또렷하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로 불리는 팽목항에 솟은 '기다림의 등대'다.

세월호가 인양돼 떠나고 참사의 흔적마저 하나둘 지워지고 있지만, 방파제에 조성된 '기억의 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방문객들을 맞는다. 손바닥 크기의 네모난 타일 4656장으로 꾸며진 길이 195m의 벽이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 전국의 어린이와 주민들, 그리고 많은 예술인들이 새긴 추모 글과 그림이 빼곡하다. 거기에 참사에 대한 분노와 슬픔,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든 죄책감, 진실 규명과 안전 사회에 대한 다짐이 오토이 담겨 있다.

"소가 운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운다/ 진도 바닷가/ 어미 소들이 운다." "봄꽃들아/ 아이들아/ 기억하고 기다리게."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꼭 만들어 줄게." 세월호 추모의 상징이 된 수천 개의 노란 리본들이 흩날린다. 그 기억의 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다시 팽목항에서

은 '잊지 않을게'다. 유족들이 만든 타일의 문구엔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부모들의 애끓는 심정이 절절히 배어 있다. 문구를 읽어 가다 보면 금세 가슴이 먹먹해진다. 추모객들의 눈자위도 어느새 벅게졌다. 장대 끝에 나무 새를 매단 다섯 개의 솟대들도 지금까지 유해조차 찾지 못한 다섯 명의 희생자를 기다린다. 대형 노란 리본 조형물과 '기다림의 의자'를 지나 방파제 끝에 다다르면, 등대 앞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추모 벤치와 '하늘나라 우체통'이 보인다.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한 우체통에는 '떠난 자와 남은 자의 소통으로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방파제 너머 바다 위에는 상조도와 하조도를 비롯한 15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뤄진 조도 군도가 새뿔처럼 무리지어 있다. 사고 지점인 매향 수도는 그 섬들을 지나 남서쪽으로 30km 가량 떨어진 팽골도와 거차도 부근이어서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팽목항 광장에는 컨테이너를 이어 붙여 만든 '세월호 팽목기억관'이 있다. 이곳은 원래 유족들이 희생자 304명의 영정과 위패를 모셔 놓고 미수습자들을 기다리며 추모하던 분향소였다. 2017년 4월 세월호 전체가 인양되고 지난해 4월 정부 합동 영결식이 치러진 이후, 대부분의 유족들은 영정 사진과 유품을 안고 철수했다.

컨테이너 안팎의 벽면에는 '봄꽃처럼 아름다웠던' 단원고 학생들의 반별 단체 사진을 담은 펼침막이 걸려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희생자들의 영정을 담은 영

상과 수천의 하얀 종이배를 쌓아 만든 세월호 모형, '기억 나무'와 노란 바람개비, 그리고 시화들이 그날의 아픔을 일깨운다. 방명록에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부끄러워하며 평안을 기원하는 글귀가 가득하다.

세월호를 만나려면 팽목항에서 60여 km 떨어진 목포 신항으로 가야 한다. 해남 화원고 영암 급호도를 지나 목포 허사도에 들어서면 목포 신항만(주) 건물이 보인다. 철망 너머 부두엔 시뮬레이션이 슬고 처참하게 찌그러진 선체가 세워져 있다. 뱃머리에 새겨진 'SEWOL'이라는 글자가 아니면 무슨 배인지 알아볼 기 힘들 정도다.

매향 수도에 잠들어 있던 세월호는 참사 3년 만인 지난 2017년 3월 23일 물위로 인양됐고, 그달 31일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다. 침몰 당시 모습 그대로 1년 이상 육상에 거처됐다가 지난해 5월 10일 바로 세워졌다. 직립 후 세 차례의 수색 끝에 미수습자로 남았던 아홉 명 가운데 네 명의 유해를 수습해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직 다섯 명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다. 선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를 위해 당분간 목포 신항에 머물게 된다.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대형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정부, 승객들에겐 '기만회'로 해 놓고 자신들만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돈벌이에 눈먼 해운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관피아들의 행태가 그랬다. 무리한 화물 적재와 증축, 사고 후 초동 대처 실패, 뒤늦은 구조,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진상 조사. 다. 그것만이 또 다른 비극이다.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 시위로 나타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나라다운 나라' '안전사회'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커졌다.

이제 참사 이후 다섯 번째 봄을 맞는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대형 재난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장성 효사랑병원,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의 화재는 물론이고 인천 영흥도 선박 충돌 같은 해상 사고도 반복됐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산업 현장의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그런 사이 또 다른 적폐들이 곰비임비 쌓이고 있다. 어느 학자의 지적처럼 진정 우리 사회는 '대형 사고를 반복적으로 겪어도 사회적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병든 구조'인 것일까.

다섯 번째 봄이 왔건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지금도 사회적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월호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 잊지 말자 하면서도 잊어버리는/ 세상의 마음음/ 행여 그대가 잊을까 두렵다' (정호승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는 시구처럼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망각으로 인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드는 책무는 살아남은 우리에게 있다. 이는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점과 맞닿아 있다. 유가족의 눈물을 씻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침몰 원인과 구조 및 수습 과정 등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뿐이다. 아울러 참사 이후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의 기억을 부단히 재생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유예된 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은펜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3월 중순경까지도 우리나라는 공기가 탁해 숨쉬기가 어려웠다. 아직도 미세먼지로 나라 전체가 신을 중이다. 자연스레 하늘이 맑은 나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지구상에는 먼지가 없는 정경지역은 많다.

그중 하나가 호주다. 호주는 지진과 화산이 없는 유일한 대륙으로 가는 곳마다 공원이요.

태풍이 없는 탓으로 공원에는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나무들로 가득하다. 그런 공원에는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없어 풀밭에 누워 선풍을 즐기거나 종이 책을 보는 사람들의 휴식처가 된다. 공산품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성숙한 사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자동차도 만들지 않는 호주는 세계적인 정경지역에 속한다.

필자는 지난겨울 호주 퍼스에서 60일간 지내다 왔다. 잠깐 들여다본 호주였지만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호주는 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영연방 국가다.

필자가 머물렀던 곳은 직항이 없어 한국인이 드문 서호주의 주도인 퍼스(Perth)로 인구 200만 명, 호주의 4대 도시에 속한다.

'길을 잃어야 진짜 여행'이라 했던가. 퍼스에 머문 동안 방향 감각을 잃고 간혹 길을 묻는다. 그럴 때마다 한참을 동행하면서까지 안내해 주는 그들의 친절함에 놀라곤 했다.

버스를 탈 때마다 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중앙 통로는 비워두고 창가부터 앉는 것이 그들의 습관으로 보였다. 필자는 한국에서처럼 무심코 중앙 통로에 앉았다가 한참을 지나 주위를 살펴보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적이 있었다. 그

들은 버스에서 빈자리가 있어도 소지품을 놓지 않는다. 자기 무릎에 안거나 발 밑에 두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활방식인 것 같았다.

버스에서 내리는 하룻길 중·고등학생들 중 가방에 인형이나 마스코트 등을 매단 학생은 볼 수 없었다. 학생 옷차림에서 어떤 꾸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그동안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내면화한 교육에 실패했다고 본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전장모와 가방을 거쳐 오며 체험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이 익숙한 듯하다. 복잡한 지하철 속에서 "잠깐만요!"를 외치며 당연한 듯 밀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본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먼저라는 강박관념이 깊게 박힌 사境이 되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춰진 미안하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게 이제 우리도 양적 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나 '양보와 헌신의 사회'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한다.

호주는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다. 특히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양성평등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 문화가 부러웠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니 시비가 있을 수 없다. 자기를 과시하거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을 뿐더러 사치를 하거나 남을 의식한 치장을 전혀 볼 수 없기에 빈부격차도 느낄 수 없었다.

그에 비해, 우리 사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듯하다. 더 큰 차, 더 넓은 아파트, 남들이 보았을 때 우월해 보이기 위한 '사회적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강하다.

우리는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직장을 원한다. 그게 안 되면 비싼 명품이나 고급 외제차와 같은 허세와 허영심으로 대신 채우려 한다. 남이 부러워할 그 무엇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식이다.

자기 자신보다 남에게 돋보이려는 걸 차례에 집착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남이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을 느끼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아니다.

나고야 시장이 광주에 보낸 따뜻한 메시지

신랑과 함께 5·18의 진실을 알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5·18 기록관에 둘러 왜 항쟁이 일어났는지,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피해와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 꼼꼼히 새겨들었다. 그녀는 고려대 사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나고야 출신 미사키씨다.

그녀가 광주를 찾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학자로서 5·18의 역사에 대해 관심도 있었겠지만 일부러 광주를 찾은 것은 필자와의 조그마한 인연 때문이다. 그녀는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 시장 의 조카다. 그녀가 5·18의 진실을 찾아 나선 것은 다카시 시장이 광주에 가서 필자를 꼭 만나보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계에서 5선 중의원을 역임한 다카시 시장은 2017년 지방 선거에서 나고야 시장에 당선되어 4선에 성공한 거물급 정치인이다. 필자와의 인연은 지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광산 구의회 의원으로 개혁과 혁신에 앞장섰던 필자에게 현지 일본 나고야 시장이 다가왔다. 나고야의 혁신을 위해 시장직을 맡았는지 꼼꼼히 새겨들었다. 그녀는 고려대 사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필자에게서 동질감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런 그가 필자를 아이치현 만국박람회에 초청했고, 일본 정치를 알아야 한다면 자비로 일본 국회를 견학시켜주기까지 했다. 다카시 시장이 그 이듬해에 광주를 답방하면서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러다 끊긴 우리의 우정은 올해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다리 역할을 했다. 지난 2월에 동료 의원과 방문했을 때 바쁜 일정에도 간담회와 만찬까지 마련해주면서 환대를 했다. 수영대회 협조는 당연하고 광주시와 산업·경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시 시장과의 돈독한 관계를 바라던 나고야 총영사관에서도 오는 4월 20~21일에 나고야에서 열리는 한국페스티벌에서 세계수영대회를 홍보하기로 합의했다. 그것도 전시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광주 부스를 내주기로 했다. 2015년 기준 나고야 총생산은 전국의 19.9%(62.3조 엔)로 16.4%인 도료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경제 도시다.

국제 관계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촌분의 시간도 쪼개 써야 할 정도로 바쁜 인구 230만 명의 대도시 나고야 시장과의 교류는 말할 것도 없다. 나고야 시장과의 인연이 두 도시간 교류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나고야처럼 행정은 혁신하고 경제는 살피는,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社說

능장 대처 갈팡질팡 행정이 이리 미숙해서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이날 초, 광주 지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공기 정화 장치도 없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 시교육청이 공기청정기 구입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도 정작 학교에는 개학 후 1주일 뒤에야 내려 보내는 등 능장 행정을 펼친 탓이다.

전교과 광주지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7월 공사립 초등학교에 공기 정화장치 구입 예산 26억 원을 배부했다. 대상은 공기청정기가 없는 초등학교 4~6학년 1734개 교실로, 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설치와 정산을 마치고도 했다.

하지만 1~2월 두 달간을 헛되이 보낸 뒤 새 학기 들어 일주일 이상 미세먼지 공습이 이어진 뒤에야 예산을 나눠 줬다. '뒤틀린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설 학교에는 공기 정화장치에 예산을 갖출 중양 공조 장치가 설치됐는데도 똑같이 예산을 배부했다가 뒤늦게 환수하기도 했다.

스마트팜 전남 유치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

전남도는 이번엔야말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남 유치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한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 재도전하는 만큼 성공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도 경쟁은 치열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전에는 후보지로 고흥군을 내세운 전남을 비롯해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 다섯 곳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정 실시도 시작됐다. '제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선정 작업을 위해 고흥 현지에 내려온 농식품부는 최근 혁신밸리 대상 지역의 입지 조건과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 가능성, 민원 발생 여지 등 현장 평가를 수행했다. 후보지들의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한 서류 심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전남도는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고흥군 도덕면 가야리 일원에 국비, 도비, 군비 등 700억 원을 들여 우리 온실과 실증단지, 청년 보육단지 등을 갖춘 스마트팜

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저소득 가정 학생 등 1만 4000여 명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는 과정에서는 택배로 전달하도록 했다가 업무 증가에 따른 불만이 쏟아지자 학생에게 직접 주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결과 보고 때 인증 사진을 첨부하라고 요구했다가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겹쳐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피해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사회 각계에서 국가 재난이나 다름없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이러한 능장 행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직접 공기청정기를 일괄 구매해 설치한 타 시도 교육청의 발 빠른 대응과도 대비된다. 시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 이러한 미숙한 탁상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청년 교육과 취직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 보는 실증단지까지 핵심 시설로 조성된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5파전이지만 일단 유치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하는 분위기다. 대상 후보지 30여ha가 농식품부 소유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간척지라는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촌에 청년을 유입시키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 사업인 만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지난해 탈락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성공시켜 전남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소설 '태백산맥'은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된 한반도에서 일어난 좌파(左派)와 우파(右派) 간 사상 대립을 리얼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보성군 벌교읍을 배경으로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치열했던 이념 대립이 그려진다. 민초들의 삶과 한(恨)이 리얼하게 녹아난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좌파와 우파의 어원은 1978년 프랑스 혁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으로 성공한 혁명 정부가 왕권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한 뒤 국민공회를 구성했다. 이때 소시민과

좌파, 우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를 아예 '좌파 정권' '좌파 독재정권'이라고까지 부

르면서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수석 대변인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색깔론을 펴고 있다. 아마도 보수 세력 집결을 꾀하려는 전략일 것이다. 정치권이 지지율을 얻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좌우로 나누고 있는 셈이다. G20 회원국으로 선진 국가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과거 좌·우 이념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문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